

정부,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

- 7~8월 원유 도입 물량 전년대비 100% 확보, 단기수급 영향은 제한적
- 정부와 정유·해운업계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로

7월 13일(월) 오전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발표, 미군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수급 및 유조선 통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미-이란 간 ‘종전 MOU’ 체결로 중동지역이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선박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등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정세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항 여부 등 원유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정유·해운업계 및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신속히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따른 원유 수급 및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각 업계의 원유 수급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물량은 전년대비 100%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상황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업계와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중동정세와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체물량 확보방안도 병행 모색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문신학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한 소통하며 국민생활의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동정세 불안정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 석유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15)
			주무관	정근화 (044-203-5219)



□ 개 요

- (일시/장소) 7.13(월) 10:00~11:00 / 세종 영상회의실 556호
-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부 차관(주재)
(기관) 한국석유공사
(업계) 석유협회, 정유업계, 해운협회, 해운업계

□ 논의 내용

- ❶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수급 동향
- ❷ 업계 원유 수급 대응 현황 및 계획

□ 세부 시간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3	(3')	▶ 인사 말씀	차관
10:03~10:13	(10')	▶ 국제 유가 및 수급 동향	한국석유공사
10:13~10:23	(10')	▶ 업계 원유 수급 대응 현황 및 계획	정유업계
10:23~10:33	(10')	▶ 업계 선박 통항 현황 및 계획	해운업계
10:33~10:58	(25')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0:58~11:00	(2')	▶ 마무리 말씀	차관